

에너지 사용량 32% 감축 나선다

전북교육청, 에너지 효율적 이용·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실천 중심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수립

전북도교육청이 에너지절약에 적극 나섰다. 지난 5일 도교육청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위한 실천 중심의 '2021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배출량(2020년 조정)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2% 이상 감축해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고, 2030년까지 50%이상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 실효를 분석 평가한다.

또한 연 2회 소속기관별로 에너지 절약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관·과별 에너지지킴이를 지정해 전력 절감, 복도 1/2 소등, 점심시간 소등, 미사

용 사무용 기기 관리 등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부문으로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의무화, 근무시간 중 개인 전열기 사용을 금지하고, 수송부문으로는 관용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 및 임차, 경차 및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면 10% 이상 의무 확보, 승용차 요일제 등을

실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관별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량 감축으로 생활속 에너지 절약 습관을 정착해 나갈 것이다"며 "불필요한 전력이 낭비되지 않게 실천 중심의 에너지 절약 정책을 지속적 추진해 지구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

인재 발굴·일자리 창출

우석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선정

우석대학교는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6년 연속 선정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우석대 진로취업지원센터는 그동안 전북 도내 미취업 청년 6,5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 ▲온·오프라인 직무 페스타 ▲채용 킷포 ▲일자리 기획 행정 전문 인력 양성 과정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연결하고, 맞춤형 인재 발굴 및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왔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우석대는 고용노동부와 전북도로부터 1억7500만 원을 받아 올해 12월 말까지 전북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기획 전문가 양성 과정'과 '취업 연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일자리 유관기관 등과의 공동 협력을 이끌어 우수 인재들이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남천현 총장은 "지역 내 고용 네트워크 구축 강화와 인식 개선을 통해 인력 수요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년의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비전대-블루비즈,사업개발·전문인력양성 위한 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지난 5일 통합멀티미디어컨퍼런스룸에서 ㈜블루비즈와 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팩토리 분야 공동 사업개발 및 마이스터대(전문기술식사과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홍순직 총장, 정석훈 대학혁신본부장, 최승훈 산학협력단장, 김해미 교수, 김지홍 교수와, 김용현 대표이사, 임미라 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팩토리 분야 공동 사업개발 및 공동 연구개발 협력, ▲스마트해설시스템 기업에 플랫폼, 솔루션산업 전반에 정보교류 및 공동개발/산학협력, ▲마이스터대(전문기술식사과정) 전문인력 양성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홍순직 총장은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계획에 맞춰 비전대와 블루비즈가 협력해 중소기업에 필요한 단기 직무 과정과 석사 수준의 고도화 과정을 도입 운영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숙련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더불어 홍 총장은 "본교 졸업생에 대한 매년 3명 이상의 채용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용현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블루비즈가 비전대에서 계획하는 미래성장 계획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비전대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확대하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인력 양성 및 비전대 졸업생 채용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지역 6개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

정읍교육지원청, 31일까지 남녀공학 전환 행정 예고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봉)은 2022년 3월 목표로 관내 6개 중학교에 대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 보장하고, 평등·인성·진로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적 가치를 실현하며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정읍 시내지역 6개 중학교(공립 3개교-정읍중·정읍여중·정일여중, 사립 3개교-배영중·호남

중·학산중)에 대해 2022학년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6개 중학교에서는 각각 남녀공학 추진단을 구성해 교육적·행정적 절차 이행(교명 변경, 학칙 개정, 직인 변경 등)을 추진한다.

정읍교육지원청은 오는 31일까지 정읍 시내지역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다만,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행정예고 기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읍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남녀공학 전환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남녀공학 전환에 필요한 화장실 및 탈의실 등 필수 시설과 학습지원 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며, "2022학년도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상학교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정절차 지원과 관련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도민의 사랑받는 체육회 될 것"

전북체육회, CI·캐릭터·슬로건 선포식

전북체육회가 지난 5일 CI(기업 이미지 통합)·캐릭터 및 슬로건 선포식을 열었다.

그동안 도 체육회를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CI가 없어 구)대한체육회의 CI를 사용해왔다. 이렇다보니 기관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만들어진 CI에는 도 체육회의 핵심이념과 가치, 미래비전 등이 함축적으로 담겨졌다.

또한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전북체육회의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이 두루 적용됐다.

CI는 도 체육회의 한글 자음인 '스·비·츠'를 사람으로 형상화해 역동적인 선수, 환호하는 도민, 유관기관과 조화와 협치를 이루는 체육회를 상징화했다.

이는 미래로 도약하는 체육회,

스포츠의 감동을 전하는 체육회, 항상 도민과 함께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도 체육회는 캐릭터(마스코트)와 슬로건도 발표했다.

캐릭터는 말종위기 동물이자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된 '수달'을 모티브로 했다.

이날 도 체육회가 공개한 CI와 캐릭터는 앞서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와 오프라인 선호도 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브랜드 슬로건은 '건강한 체육, 행복한 도민, 빛나는 전북'이다.

정강선 회장은 "그동안 도 체육회의 얼굴이 없어 정체성을 나타낼 수 없었는데 CI 개발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다"며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체육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전북도,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 캠페인

전북도는 어린이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도는 지난 5일 등교시간에 정읍등초등학교 주변 교차로에서 도, 정읍시 안전·교통부서, 안전보안관 등과 함께 학교주변 안전점검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반사경 등 홍보물을 배부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 학교주변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비롯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차차, 과속 등의 교통법규 위반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는 등 계도와 홍보도 함께 이뤄졌다.

또한,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학교주변 위해요인 등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 신고가 가능하다 점도 안내해 초등학교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정절차 지원과 관련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월 22일부터 오는 3월 19일까지 4주 동안 시·군,



교육청, 경찰청, 식약청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학교 주변 등·학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개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학교주변 위해요인을 정비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학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